

수원팔경의 형성배경과 문화경관적 함의(含意)

노재현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Suwon Palkyong and the Implication of Cultural Landscapes

Rho, Jae-H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has aimed to determine how the Suwon Palkyong(水原八景: eight scenic wonders) were formed and the implicature of landscape, such as implicit intention and symbolic significance. For this, the significance and symbolic meaning of the Suwon Palkyong from the time of the 'Hwaseong Chunchu Palgyeong(華城 春·秋八景)' have been investigated in order to determine the political and social arguments in Suwon Palkyong that surrounded the formation process and meaning.

The 'Hwaseong Chunchu Palkyong' contains a variety of significant elements and factors of Pungmul(Korean drum & dance) as well as formative elements such as a castle. Plantings for beautiful scenery and water use for flood control have also been major elements in the development of Hwaseong. Therefore, it seems that the 'Hwaseong Chunchu Palkyong' is a catchphrase for the future image of the urban landscape.

Most Suwon Palkyong sites such as Paldalsan, Namje, Yungneung, Manseokgeo, Chukmanje, Hwahongmun, and Yongji(a pond in Banghwa Suryujeong) are related to the 'Hwaseong Chunchu Palkyong'. 'Gwanggyo Jeokseol(光教積雪: the landmark mountain, Mt. Gwanggyo with snow)' and 'Paldal Cheongnam(八達晴嵐: Mt. Paldal with shimmering air)' have also been added to Suwon Palkyong.

Suwon Palkyong i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with water including the origin of Suwoncheon(水原川), an artificial reservoir for flood control and irrigation and Bibopungsu in Yungneung(隆陵), as well as the source of water for rituals after the death of King Jeongjo(正祖大王). Based on Suwon Palkyong,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water is a decisive medium in connecting old Suwon with Hwaseong New Town and essential element in the natural landscape.

In conclusion, while Hwaseong is a 'Designed Landscape' that was created with a specific inten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the 'Hwaseong Chunchu Palkyong is a 'Desired Landscape' that envisioned a future landscape while Suwon Palkyong is an 'Evolved Landscape' related to the business affairs of the citizens.

To completely restore Hwaseong, whose value and importance have been recognized internationally, therefore, the fundamental restoration of a cultural landscape as well as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form of the Hwaseong landscape including Suwon Palkyong is essential.

Key Words: Hwaseong Fortress, Chunpalkyong(春八景), Chupalkyong(秋八景), Desired Landscape, Heritage Landscape, Evolved Landscape

Corresponding author: Jae-Hyun R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Samnye-eup, Wanju-gun, Jeollabuk-do 565-701, Korea, Tel.: +82-63-290-1494, E-mail: orchid@woosuk.ac.kr

I. 서론

수원 화성(사적 제3호)은 정약용(1762~1836)의 성화주략(城華籌略)을 바탕으로 1794년(정조 18년)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축성되었다. 4백년전 한양 정도(漢陽 定都: 1394년)를 의식하여 이루어진 화성건설은 왕조 중흥의 사명의식, 사도세자에 대한 국왕의 효심, 관료학자, 예술가들의 능력과 과학기술의 성과가 총동원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이루어졌다(박현모, 2001). 화성은 다른 성곽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방어 시설 등 제 측면의 뛰어난 가치가 인정되어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2004년에는 미국토목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로부터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의 계단식 논(Ifugao Rice Terrace)에 이어 두 번째로 역사적 토목구조물로 선정되었다(이태식 등, 2004).

토건적 위업 이외에 또 다른 성과는 도시경관의 계획적 배려에서 찾을 수 있는데, 화성은 러시아의 성페테르부르크, 미국의 워싱턴과 함께 18세기 조성된 세계 3대 신도시 구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심승구, 2006). 또한, Howard(1850~1928)에 의해 영국에서 전원도시 구상이 발표된 것이 1898년, 이 구상이 신도시 레치워스에서 실현된 것은 1946년이었음을 볼 때, 화성 전원도시 구상은 이보다 100여년 앞서고, 그 실천은 무려 150여년이 앞선다. 화성계획을 신도시 또는 전원 도시적 개념으로 보는 것은 첫째, 수도 한양을 모도시로 조성한 위성도시였다는 점, 둘째, 신도시의 번성을 위해 수도의 기능 일부를 이전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자족적인 도시로 키우려고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손정목, 1976; 안경환, 2001). 특히 자족·자립형 도시 육성을 목표로 용수의 공급, 관개시설과 둔전의 설치를 통한 자족성의 확보,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결합을 추구하면서 식재 및 녹지계획을 구상하였다는 점(윤종태, 2002; 백종철, 2007)에서 전원도시적 발상의 면모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용미학, 경관생태학적 접근 과정 속에서 이 시기 화성 내외부에는 화성춘·추팔경(화성16경)으로 꼽힐 만큼 수려한 풍경이 구축되었고, 이후 수원팔경의 원전(原典)이자 수원의 대표적 경관상의 모태로 회자되어 왔다. 그러나 정조 사후, 시세 위축과 정체를 겪었고 6.25동란 그리고 수원시의 근대화 과정에서 화성과 그 주변부는 본래 모습의 상당 부분이 변질되었거나 소실되고 말았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화성의 진정한 복원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지 물리적 복원만이 아닌 화성 원형경관 이해를 전제로 한 의미 복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원시 화성사업소가 18세기 후반 화성의 도시원형 복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옛 모습 재현사업'과 화성 관련 '7대 핵심사업¹⁾'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화성 원형경관의 파악과 경관정체성 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원천(유천)을 집중

연구한 윤종태(200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화성의 경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 성과는 드물다. 일본에서도 근대 역사 문화도시의 풍경 복원과 보전을 위해 주민적 함의에 의한 지역 경관의 정체성(Identity)을 확보한 오타루시(小樽市)의 성공적 사례(양성욱, 2007)를 필두로, 일본 문화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유네스코의 문화경관 개념을 시 문화재보호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오민근, 2007). 또한, 청목양이(靑木陽二)와 신원영자(榊原映子)(2007) 등이 주축이 되어 일본 팔경의 분포는 물론 최근의 연구동향을 정리함으로써, 지역 내 각 팔경의 특성과 지정배경²⁾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등 문화경관 지정 및 보존의 기초 자료화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성경관 의미복원에 대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표로 화성 축조 이후 수원 지역에 전래되고 있는 「화성춘·추팔경」의 내용과 의미를 밝히고, 지금까지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수원팔경」으로 정착되었는지의 과정과 그 의미 등을 모색함으로써 「문화경관 수원팔경」의 가치와 함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II. 연구사

한 지역의 경관을 '인간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권력 간의 순간적 균형이자 평행상태를 대변하며 시대성, 지역성을 반영하는 지리적 실체(전종한, 2006)'로 파악할 때 수원 화성의 건설과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관계획 또한 이 시기 정치사회적 변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영진(1973)이 조경사 연구의 소중한 대상으로 화성성역의 가치를 평가한 이래, 손정목(1976)은 세계 최고의 계획도시 화성을 조명하였으며, 정기호(1994), 박춘균과 이재근(2000), 안경환(2001), 박천우와 김은진(2003)은 화성의 건축적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였고, 윤종태(2000)는 화성 원형 경관 모색을 위한 방안으로 버드나무 식재경관의 의도를 밝혔다. 김영모 등(2004)은 화성 내 핵심시설인 행궁 식생경관 복원에 대하여, 손민호 등(2004)은 방화수류정 권역의 입지 및 공간특성에 대해, 허소영(2000), 김동훈과 강건희(2002)는 수원 화성의 보전과 개발방안에 대하여, 김현정과 김정태(2004)는 화성 성곽의 야간경관 조명실태를 실증적으로 밝혔으며, 박동석 등(2007)은 화성의 조망점과 조망경로를 고려한 경관보존 및 관리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백종철(2007)은 수원 화성의 계획적 가로체계와 식재수종과 의미분석을 통한 녹지계획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김동욱(2002b)과 박정혜(2002)는 각각 화성성역의 의미가 갖는 건축 및 회화사적 고찰을 시도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수원 화성의 건축 토목적 측면과 녹지, 식재경관의 조성 및 그 공간특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는 있으나, 윤종태

와 백종철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화성의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 성과는 드물다. 특히 화성의 형식미학과 의미경관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원의 대표적 문화경관 수원팔경을 소재 또는 주제로 하여 팔경 형성배경이나 화성 경관계획과의 관련성 그리고 그 함의를 밝히고자 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렵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의 관점 및 내용

본 연구는 현재에 남겨진 「수원팔경」이라는 문화경관을 주요 연구대상이자 단서로 하여 과거로부터의 경관변화를 추적하는 퇴행적 방법(retrogressive approach)을 취하고자 하였다. 특히 화성(그림 1 참조)과 수원의 팔경 형성과 변모과정을 통해 수원팔경 등 문화경관을 외관상으로는 ‘형태적(morphological)’인 동시에 정조 시대 이후 그리고 수원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람과 물질 관계를 표상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이며 상징적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조선시대 수원팔경시나 수원팔경도는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팔경의 등장시기를 제시하긴 불가능하다. 그러나 화성춘·추팔경이 수원팔경에 앞서 알려졌고, 또한 수원팔경의 원형적 경관상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팔경(도)의 형성 및 제작시기와 화성 신도시 건설의 시대표를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성춘·추팔경(도)은 화

성성역의 완성시기와 때를 맞추어 제작 또는 등장한 것으로 파악되며, 수원팔경의 하나인 ‘남계장류’는 남계의 축조 시기가 순조 25년(1825년)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화성 축성 이후 최소 약 25년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축만제 이후의 지칭인 ‘서호낙조’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화성춘·추팔경은 수원팔경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의 관점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화성의 경관계획적 시도에 대한 정조시대의 노력과 그 성과의 탐구, 둘째 화성춘·추팔경이 수원팔경으로 전환을 계기로 본 경관상의 변모와 수원 화성과의 관련성 검토, 그리고 셋째 화성춘·추팔경과 수원팔경의 형식성과 상징성 분석을 통한 수원팔경의 등장 배경에 따른 함의의 파악이다.

2. 분석 및 해석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고지도 분석 및 해석 그리고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자료 및 인용문헌으로 화성 관련 연구논문과 화성성역의궤, 증보산림경제, 임원경제지 등의 고문헌을 재인용하였으며, 고지도는 화성전도(화성성역의궤), 화성도, 1872년 수원부지도 그리고 대동여지도를 분석하였다. 화성춘·추팔경과 수원팔경의 각 경관내용을 장소와 품물로 나누어 분석하고, 화성의 시설요소와 관련성을 검토하는 한편 화성춘·추팔경에 대한 기호론(semiotics)적 측면에서 각 경의 지칭 사항, 수단 그리고 전달된 함의 등의 파악을 통한 경

표 1. 연구대상 화성춘·추팔경(도)과 수원팔경

연구대상		구성 및 제작시기	작(정)자	출전	관련내용	비고
화성춘·추팔경	서(書)	미상	미상	홍길주(1786~1841)의 시문집인 표룡을참(標龍乙織)(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249)	화성춘·추팔경 8개의 그림 초본에 대해 논평	1795년 이전의 설정으로 추정 화성춘·추팔경도 소표제로 등장
	화(畵)	1795년	김홍도	수원시(1994) 『화성성역의궤』 6: 「재용(財用) 하(下)」, 박정혜(2002) 『화성성역의궤』의 회화사적 고찰, p. 423		
수원팔경	서(書)	19C 이후로 추정	미상	수원시(1991)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pp. 146-148 수원향교(2002) 수원향교지, pp. 844-850 유봉학, 정해득(1999) 수원지명총람, pp. 249-257 http://tour.suwon.ne.kr/		별도의 제화시는 전해지지 않음
	화(畵)	20C 말로 추정	미상	http://tour.suwon.ne.kr/		
화성성곽		1794~1796년	정조	김동욱(2002)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p. 81		
저수지	북지	1794년	정조	김동욱(2002)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pp. 174-181	북은구내 연못	현재 만석거
	하남지	1796년			성곽내	
	만년제	1798년			용릉 근처	
	축만제	1799년			서호낙조(西湖落照)의 대상	축만제→서호
	남계	1825년	순조		남계장류(南堤長柳)의 주대상	순조 25년



그림 1. 수원 화성
자료: 구글

관의미를 추론하고 조선 초기 한양도읍을 찬양한 정도전의 「신도팔경」의 경관내용과 비교하였다. 한편, 정조의 팔경 향유 경향을 검토하고 화성춘·추팔경병풍도의 제작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화성의 경관계획적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지도 분석을 통해 화산과 화성의 입지공간적 인식과 수원팔경에 주 모티브가 되는 물(水)과의 관계성을 해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화성춘·추팔경과 수원팔경의 경관의미와 그 과정 속에 내재된 함의를 추적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수원팔경의 형성배경

1) 화성의 조경의지

규장각 소장, 작가 미상의 「화성행궁도」를 보면, 행궁은 팔달산 정상 서장대 아래의 산기슭을 중심으로 경사지가 펼쳐져 우측 뒤편에서 시냇물이 전면 흘러가며, 후면 산기슭과 좌우 담장 내·외에 소나무, 버드나무를 중심으로 다수의 수종을 식재하는 등 계획적 조경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팔달산 일원에는 1794년부터 1797년까지 매년 봄과 가을에 모두 7회의 파종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파종된 수종은 단풍나무씨, 솔씨, 상수리와 함께 탕자씨, 뽕나무씨, 밤, 자두씨, 복숭아, 살구 등의 유실수였다(수원시, 1994). 「조선임수」에 의하면 노송으로 우거진 팔달산은 우리나라의 도시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이었다고 전하며 현재에도 서사면 일대 소나무는 수령 약 130년 정도, 흉고직경 45cm, 높이 25m에 달하고 있다(장미아 등, 2007; 수원시, 2000b). 정조 19년(1795년)에 한양으로 향해 조성된 신작로(일명 노송지대)는 8년간 식재와 파종을 거듭하여 완공하였는데, 화성 축성기 1794년에서 1797년에는 단풍 종자 1섬, 소나무 종자 2섬, 오디(桑:상심) 2섬 반, 밤 2섬, 상수

리 42섬 13두, 탕자 1섬, 자두 2,350주, 복숭아, 살구 기타 유실수 582주를 봄에는 파종하고, 가을에는 묘목을 식재하고 예찰을 철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소나무 개체목당 팻말을 붙여 특별 관리(최영진, 1973)하는 등의 조경계획 및 시공뿐만 아니라 조경관리의 의지까지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방화수류정과 수원천 일대에는 소나무와 꽃나무, 버드나무를 식재하여 승경의 창출 의지뿐만 아니라 수원천을 이용한 생태하천계획이 돋보이며, 남·북수문을 설치하고 물 흐름의 관리와 돌다리의 기능을 겸하였다. 수원팔경의 하나인 '남제장류'는 봄이 되면 맑은 물 흐르는 수원천(柳川)의 물안개와 매향교 부근에 핀 꽃 구경, 그리고 화홍문에서 남수문까지 긴 제방 버드나무 가지의 긴 행렬을 지칭하는 승경이며(그림 2a 참조), 또한, '서호낙조'의 주대상인 서호는 화성 축성 당시 관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인공호수로 여기산의 그림자가 수면에 비칠 노을 무렵의 절경은 마치 아름다운 기생의 자태에 비유, '수원의 눈썹'으로 상징되며, 중국 항주의 미목(眉目)³⁾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불렸다(그림 2b 참조). 이밖에도 화성 성내에는 상남지, 하남지, 북지, 동지, 상동지 등 모두 5개의 연못이 있었으며 시차를 두고 조성하였다(김동욱, 2002a: 178). 이렇듯 정조는 대 화성 식수 조경정책과 문화적 안목, 그 가운데 환경 친화적이면서 지속적인 근대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며(윤용태, 2002: 39) 결과적으로 경승의 조성과 치수를 목적으로 한 식재 그리고 물의 도입 및 활용은 수원 화성의 중요한 계획요소이자 형태와 기능을 겸비한 경관계획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되었다.

2) 수원춘·추팔경의 구성과 변천

화성의 읍성건설은 도시기반시설, 각종 성곽시설, 행궁 등의 조성뿐만 아니라 식목에 의한 조경사업 그리고 인공구조물들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표현한 화성춘·추팔경 등의 경관상(수원시, 2000)에 대해 홍길주(1786~1841)의 시문집 표룡을참(標龍乙儼)⁴⁾에는 화성춘팔경과 화성추팔경 8개의 그림 초본에 대해 논평한 「제화봉팔관도[본본]후(題華封八觀圖[粉本]後)」라는 글이 있어(수원시와 수원문화원, 1999: 249) 그 면모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화성성역의계획에 방화수류정을 그린 「동북각루외도」와 만석거 주변의 풍경을 묘사한 「영화정도」, 「영화역도」 그리고 남지를 그린 「은구도」 등에서 그 잔영을 찾을 수 있다. 화성춘·추팔경의 경관상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의 밑그림 「화성전도」는 팔달산과 유천, 맞은편 안산을 중심으로 구획된 대도회(大都會)의 전경을 부감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박정혜, 2002). 팔경 경물의 포치분석 결과, 화성춘·추팔경은 성내경관 5개소, 성곽경관 4개소 그리고 성외경관 7개소 등으로 성내의 요소가 골고루 분포되어 표현되었음을



a: 유천가의 버드나무 띠숲



b: 향미정과 서호

그림 2. 수원천과 서호의 옛 모습

자료: 사예연구소, 2000: 58-60

알 수 있다. 또한, 화성춘·추팔경은 북수문과 방화수류정을 중심으로 성 북동부와 수원천 주변에 다수 포치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화성 성곽 및 그 주변에서 빼어난 경관을 만들어낸 곳과 성곽 신축과 관련하여 의미가 깊은 곳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화성춘·추팔경의 주대상에는 화성의 유천과 오교, 화성 성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대상 방화수류정과 용연, 화홍문 그리고 구암, 서장대·동장대, 화양루 등 탁트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성곽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궁의 정문 신평루와 후원의 미로한정 그리고 관길야, 대유둔, 만석거 등 새로 개간한 넓은 농지와 저수지, 들과 뽕나무숲, 영화역 주변의 번성함과 함께 성내에 계획적으로 조성한 연못 등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도시건설에 따른 이상향을 지향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등의 형체요소는 물론 산(山), 지(地), 수(水) 그리고 사람(人) 등의 다양한 의미요소와 풍물요소가 망라되어 있다.

한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춘추팔경에서 지시사항과 그 의미를 해석해 볼 때, 정조의 부친을 모신 화산 용릉이 길지임을 지시함으로써 앞으로의 미래도시 화성의 상서로움과 번영을 의미한다고 파악된다. 그리고 '길야관상', '대유농가', '석거황운', '양루상설' 등은 농산업의 풍요와 번성을 의미하며, '화우산구', '서성우렵' 그리고 '동대화곡' 등은 수성(守成)을 위한 무예

표 2. 화성춘·추팔경의 구성과 경관특성

구분	소표제	경관내용	장소(경물)	풍물	화성과의 관련성
춘팔경	1. 화산서애(花山瑞靄)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화산의 정경	화산	아지랑이	성외(용릉)
	2. 유천청연(幽天)	맑은 날 물안개 낀 수원절 풍경	유천	물안개	성내
	3. 오교심화(午橋尋花)	꽃놀이가 한창인 매향교	매향교	꽃놀이	성내
	4. 길야관상(吉野觀桑) ⁵⁾	뽕나무 숲 아름다운 관길야	관길야	뽕나무숲	성외
	5. 신평사주(新豐社酒)	향음주례가 행해지는 신평루 광경	신평루	향음주례	성내(행궁)
	6. 대유농가(大有農歌)	농요 소리 드높이 농사가 한창인 대유둔 들녘	대유둔	농요	성외
	7. 화우산구(華郵散駒)	말들이 이리저리 뛰노는 영화역 풍경	영화역	뛰노는 말	성외(역참)
	8. 하정범익(荷汀泛鷁)	연꽃 사이로 물새가 노니는 연못 정경	남지	연꽃과 물새	성내
추팔경	1. 홍저소련(虹渚素練)	흰 비단을 펼친 듯 물살 장쾌한 화홍문 경관	화홍문	물살	성곽
	2. 석거황운(石渠黃雲)	누렇게 익은 벼가 황금물결 이룬 만석거 주변	만석거	황금 들녘	성외
	3. 용연제월(龍淵霽月)	맑은 하늘 달 밝은 가을밤의 용연	용연	달맞이	성곽
	4. 구암반조(龜巖返照)	저녁 별 찬란한 구암) 경치	구암	저녁별	성외
	5. 서성우렵(西城羽獵)	가을 사냥이 한창인 화서문 밖 풍경	화서문밖	사냥	성외
	6. 동대화곡(東臺畫鵠)	활쏘기가 벌어진 동장대 정경	동장대	활쏘기	성곽
	7. 한정품국(閒亭品菊)	국화꽃 벌여놓고 완상하는 미로한정의 풍경	미로한정	국화 완상	성내(행궁)
	8. 양루상설(陽樓賞雪)	늦가을의 화양루 눈 구경	화양루	눈 구경	성곽

표 3. 화성춘·추팔경의 지시내용과 의미해석

구분	소표제	지시사항	수단	전달된 의미
춘 팔 경	1. 화산서애	화산 용릉의 서기와 반룡농주형 풍수형국	상서로운 기운	길지(사도세자의 능원의 상서로움)
	2. 유천청연	맑게 개인 날	햇빛과 맑은 물	희망과 신비함
	3. 오교심화	꽃놀이	꽃과 놀이	번영과 아름다움
	4. 길야관상	누에치기의 분주함	뽕나무 잎	산업 장려
	5. 신흥사주	유생들의 향약에 따라 예를 실천하는 행사	향음주례	백성의 교화와 풍요
	6. 대유농가	국영농장 대유둔의 모내기 농요	노래	풍요
	7. 화우산구	역동적인 역마들의 움직임	건장한 역마	활기와 국방 안녕
	8. 하정범익	평온하고 아름다운 정경	연꽃과 익조	평화와 아름다움
추 팔 경	1. 흥저소련	장엄하게 쏟아지는 물살	펼쳐진 흰비단	장쾌함과 수원의 풍부함
	2. 석거황운	만석거(국영농장 대유둔) 주변의 황금 물결	황금평야	수확의 풍요로움
	3. 용연제월	맑은 하늘 날, 달 밝은 가을 밤	용연의 정취	여유와 풍류
	4. 구압반조	빛나는 거북 지형	거북	사령신의 하나, 장수(무궁함)
	5. 서성우렵	겨울 사냥	사냥	무예의 연마, 강성함
	6. 동대화곡	활쏘기가 벌어진 동장대	활쏘기	활기찬 기상, 무예연마
	7. 한정품국	국화꽃 완상	국화 향기	행궁의 낭만
	8. 양루상설	화양루에서 조망한 만설	평야에 쌓이는 눈	명년 농사의 풍요

의 연마와 활기 찬 기상의 표현을 통해 성곽도시 화성의 안녕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오교삼화', '하정범익', '용연제월' 그리고 '한정품국'은 서민과 유생들의 자연완상 그 속에서 깃드는 평화와 풍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조선조 창업과 함께 정도전은 「신도팔경(新都八景)」으로 새 도읍 한성부의 풍광을 찬양하였다. 「한도십영(漢都十詠)」은 태조 7년 역시 신도읍 한성부의 모습을 그린 병풍을 하사 받아 완성된 도성의 풍광을 정도전, 권근, 권우 등이 시로서 읊은 것으로 양자는 모두 새로 창업하는 신도시의 승경을 찬양 고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도팔경」(표 4 참조)은 신증동

국여지승람에 전하고 있는바 조선왕조의 건국의 정당성과 천도의 당위성을 나타내기 위해 창작된 작품으로 정치적 목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최은주, 2001: 311)을 볼 때, 혁명적 정권 교체와 도읍 이전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고 천도의 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화성춘·추팔경의 형성배경 및 지시사항과 전달된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신도팔경이 새로운 도읍 한양의 지형과 정치제도, 풍물 등의 민관군(民官軍)의 풍요와 번영을 염원하며 희망에 찬 새 도읍지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 새 왕조의 번영을 예감하였듯이 화성춘·추팔경 또한 신도시 화성의 「미래 경관상으로서의 염원」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표 4. 신도팔경의 경관 및 지시내용

소표제	경관내용	지시내용(상징의미)	분류
기전산하(畿甸山河)	서울과 인근의 경기지역의 산천경개	도읍지로서 손색없는 지형지세	지형
도성궁원(都城宮苑)	배치된 성곽과 궁궐의 모습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성	관
열서성공(列署星拱)	육조거리 여러 관아들의 정연히 배열	잘 정비된 정치제도	관
제방기포(諸坊碁布)	한성부 여염집들의 질서정연함	주거와 식량의 풍요로움	민
동문교장(東門教場)	동대문 밖 살곶이벌의 국립목장	장엄한 훈련원의 경관	군
서강조박(西江漕泊)	삼개나루 서강에 정박한 배들의 모습	물산 등 경제적 풍요	민
남도행인(南道行人)	한강을 건너 도성으로 들어오는 행인	한강나루의 활기	민
북교목마(北郊牧馬)	북쪽 교외목장의 군마들의 모습	새 왕조의 번영	군

3) 화성춘·추팔경의 지시내용

화성 건설의 주역 정조는 이미 세손 시절 「상림십경(上林十景)」, 「국도팔영(國都八詠)」, 「소상팔경」, 「규장각팔경」등을 향유한 점(안장리, 2007: 14)은 매우 흥미롭다. 수원춘·추팔경의 등장은 정조를 중심으로 개혁적 성역을 이끈 신진사대부에 의해 관치적 입장에서 신도시 홍보를 위한 촉진전략의 일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의 중심에는 1796년 10월 16일, 화성성역의 낙성연을 진해할 당시에 화성성역의 주역들은 화성춘팔경과 추팔경을 열여섯 병풍그림으로 그려, 행궁에 배설(排設)해 놓고 화려한 낙성연을 벌인 것(박정혜, 2002)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병풍 그림들은 그 당시 각 50량씩, 100량이라는 적지 않은 값⁷⁾을 치루고 사들였음이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정작 병풍을 그린 화공은 밝히지 않았으나 다행히 서울대학교박물관에는 '한정품국'과 '서성우렵⁸⁾'이란 그림 두 폭이 전하고 화제 또한 화성춘·추팔경과 일치한다(그림 4 참조). 이 두 그림은 행궁과 서장대 등 성곽시설의 아름다움과 계절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기원근법과 거리감을 강화하여 현실감 있는 신도시 화성의 핵심경관적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화제 아래 적힌 '신흥도(臣弘道)'란 단원의 낙관으로 보아 단원 김홍도의 국왕 진상용 그림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홍도는 당시 궁중 화가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임금의 초상을 그리는 어진도사(御眞圖寫)에 2번이나 참여하는데, 이는 후원자였던 정조의 문화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http://www.nonghyup.com/addoorae/doorae200407/doorae200407_05_02.jsp).

정조의 팔경 문예에 대한 감수성, 새도읍과 신도팔경의 창작 등의 정황을 바탕으로 화성춘·추팔경의 병풍 제작에 투자된 거액의 비용, 당시 도화서의 비중 있는 화가 김홍도가 그렸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화성춘·추팔경의 설정과 제작 이면에는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신도시 건설 홍보의 포석이자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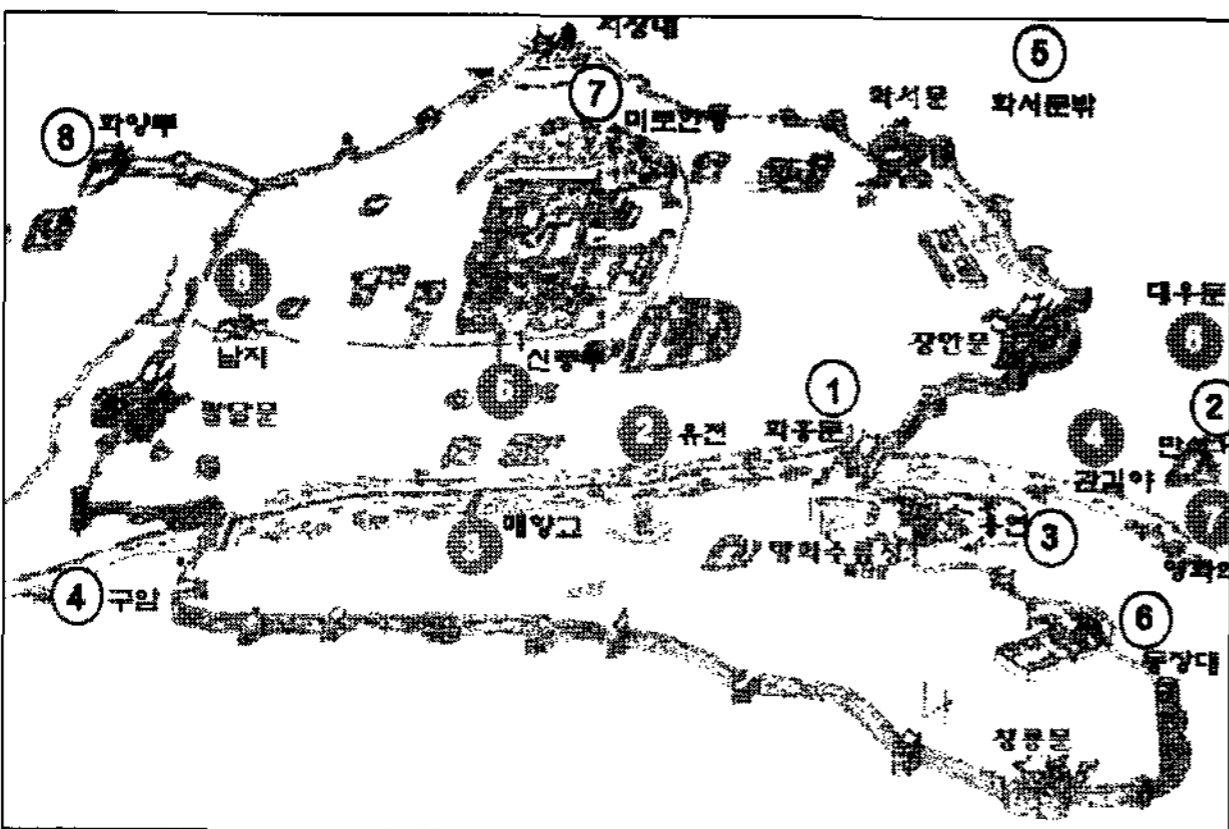


그림 3 수원춘팔경과 추팔경의 화성내 포치 형태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 밑그림은 화성성역의궤 중 목판화 「도설 화성전도」를 기본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은 춘팔경, ○는 추팔경을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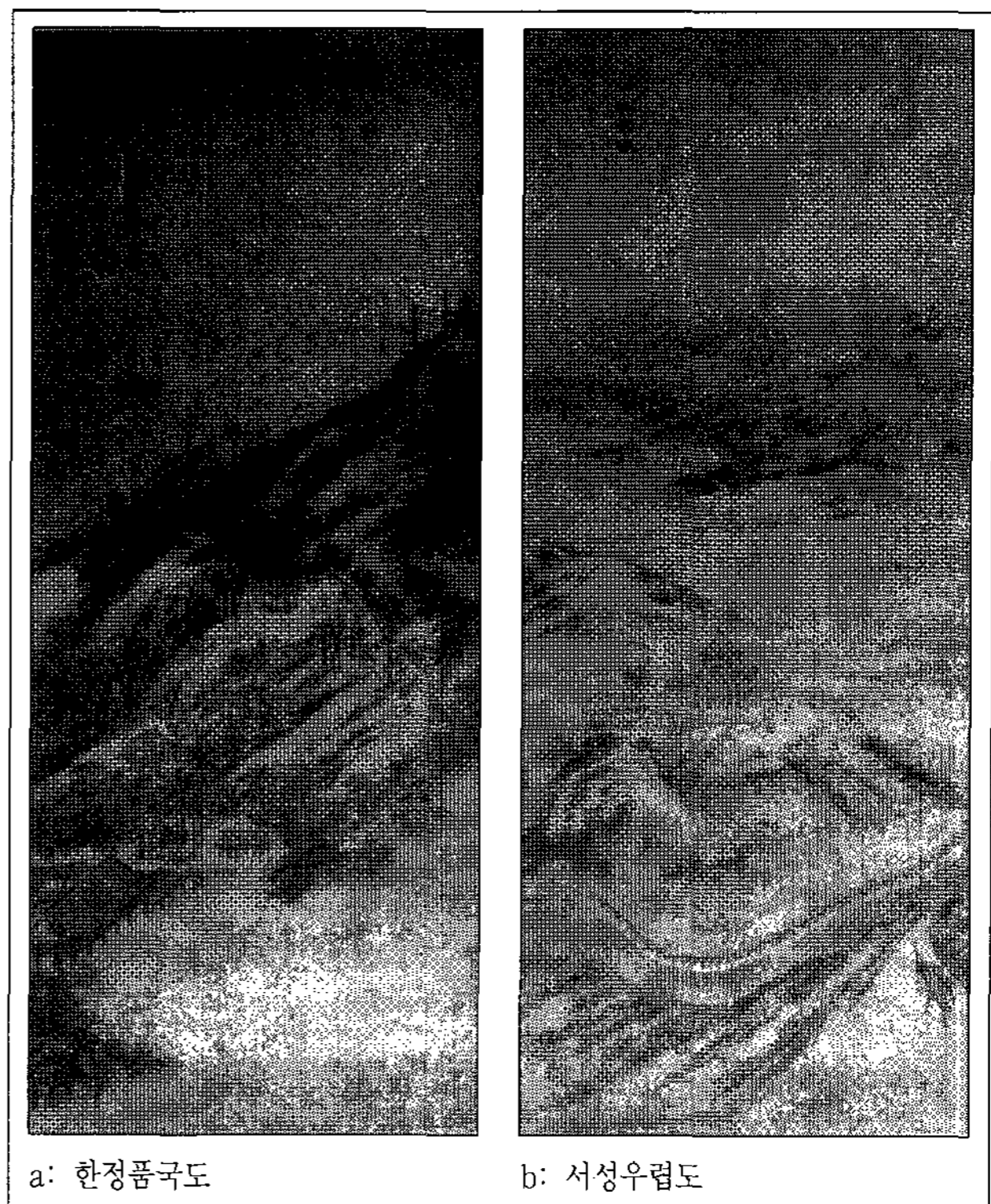
의 도시경관 미래상에 대한 염원으로서 「화성16경 제정」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따라서 화성이 특정 설계 의도 하에 창조된 의장(意匠)된 경관(designed landscape)이라면 화성 축성 직후의 모습을 담은 화성춘·추팔경은 당시 정조를 비롯하여 화성 성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의 마음에 비추어진 화성 부흥의 희망을 표현한 일종의 「소망경관(desired landscape)」으로 보인다.

2. 수원팔경의 경관상

1) 수원팔경의 형식성

본 연구의 분석 관점에서 전제하였듯이, 유봉학과 정해득(1999)은 “화성춘팔경과 추팔경은 정조 서거 이후, 화성이 도시적 성장을 계속하면서 뒷 시기 어느 때인가 수원팔경으로 다시 정리되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고 제시한 뒤 그 근거로서 앞서 연구 전제조건에서 언급했듯이, 수원팔경의 제5경인 ‘남제장류’의 주대상인 남제의 건립시기가 순조 25년(1825년)임을 볼 때, 수원팔경은 최소한 19C 중엽 이후 지금의 팔경 구도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론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변모과정과 그 요인과 의미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논증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 5와 같이(그림 5 참조) 화성춘·추팔경에서 수원팔경으



a: 한정품국도 b: 서성우렵도

그림 4. 화성추팔경 병풍의 일부
 출처: 서울대학교 박물관

표 5. 수원팔경의 경관구성과 화성춘·추팔경과의 관계

수원팔경	경관내용	화성춘·추팔경과의 관계	주시점	주대상	부대상	비고
1. 광고적설	눈 덮힌 광고산	추가	방화수류정	광고산	흰 눈	광고산
2. 팔달청람	안개에 감싸인 팔달산	추가		팔달산	안개와 구름	팔달산
3. 남계장류	긴 제방에 늘어선 버드나무	유천청연·오교심화(춘팔경)		남계	버드나무 띄숲	남계
4. 화산두견	화산의 두견새 울음소리	화산서애(춘팔경)	구읍치	화산	두견새 울음	꽃피
5. 북지상련	북쪽연못의 회고 붉은 연꽃	석거황운(추팔경)	영화정	만석거	백련, 홍련	지칭 오류
6. 서호낙조	서호에 드리운 여기산그림자	추가	항미정	축만제	여기산 그림자	서호
7. 화홍관창	화홍문의 폭포수 무지개	홍저소련(추팔경)	방화수류정	화홍문	무지개	화홍문
8. 용지대월	용지에서 바라보는 月出	용연제월(추팔경)		달	방화수류정	용연

로 서서히 전환된 경관 내용을 세분해 살펴보면 '화산서애'는 이후 수원팔경 '화산두견'의 아쉬움으로, '유천청연'과 '오교심화'는 '남계장류'의 대상장으로 되살아났으며, 추팔경의 '홍저소련'은 '화홍관창'으로 '석거황운'은 만석거의 연꽃을 상찬한 '북지상련'으로 '용연제월'은 관찰자의 입장을 묘사한 '용지대월'로 전환되었다.

'국왕의 화성 행신과 화성의 건축물과 관련된 주제'는 1881년(고종 18)까지 운영된 규장각의 차비대령화원제(差備待令畫員制)의 녹취재 제목으로 출제되었는데, 정조 연간 이후 19세기에 출제 예를 들면 만석거(현 정자동 일왕저수지) 근처에 있는 정자인 '영화정(순조 19년 10월)'과 동장대에서 야간에 군사를 조련하는 '동장대야로(헌종 9년 6월)'등이 시험문제로 출제된 것으로 보면 화성에 이르는 길과 화성의 좋은 경치는 명소로서, 화원들이 많이 다루었던 주제(박정혜, 2002)로 계속적 유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춘·추팔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대표적 수원의 지형 경관이자 랜드마크인 광고산과 팔달산을 주 대상으로 한 '광고적설'과 '팔달청람'이 추가되었다. 특이한 것은 광고산과 팔달산의 명명자가 각각 고려와 조선의 창업자인 왕건과 이성계가 전해지고 있다는 점(수원향교, 2002: 844, 846)과 수원의 조산(祖山)과 안산(案山)이라는 풍수 형국 그리고 내이밍(Naming)이 갖는 의미경관의 중의적 특성을 보여준다. 수원팔경 중 계절적 변동이 큰 경관은 '광고적설(겨울)', '북지상련(여름)', '화홍관창(여름)' 등이며, 화성 건설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형요소 및 시설인 팔달산, 남계, 용릉, 만석거, 축만제, 화홍문 그리고 방화수류정의 부속 연못인 용지 등으로 화성춘·추팔경의 대표적 경관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그림 6a 참조). 한편, 팔경의 주시점을 추론할 때, '북지상련'은 만석거 주변에 조성된 별칭 교귀정(交龜亭)인(수원향교, 2002: 844) 영화정(迎華亭)으로, 1996년 만석거를 공원화하면서 원래 영화정지에서 동서 방향 200m 지점으로 옮겨 복원되었다. 그리고 '서호낙조'는 축만제 주변에 조성한 정자 항미정(杭眉亭)으로 보인다. 축만

제에 담긴 물을 서호라 하였으며, 축만제둔(祝萬堤屯)을 서둔(西屯)이라 하였으며, 지금도 서둔동이란 지명으로 불려진다. 나머지 6개 경의 주시점은 '화홍관창', '용지대월', '남계장류'의 부감적 조망이 가능한 방화수류정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방화수류정은 '광고적설'의 시각체험을 위한 거리 및 조망각이 유효한 시점이자 팔달산을 양관(仰觀)할 때 지형경관적 체험이 가장 유효한 시점이기도 하다(그림 6b 참조). 제2경인 '북지상련'의 주대상인 북지는 화성 성곽의 북은구 안에 있는 연못으로 다양한 화목을 배식하여 「화성성역의궤」 상 '은구도'에 실려 있는 '남지'와 같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였다. 그런데 표 5와 달리 실제로는 화성춘·추팔경이 이후 수원팔경에서 정리되는 과정에서 만석거가 북쪽에 위치한다 하여 만석거를 북지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했는데, 이는 만석거 주변은 이미 춘팔경의 '대유농가'와 추팔경의 '석거황운'이라는 명소가 있었던 만큼 북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면서 일제 강점기에 만석거와 북지를 동일시한 결과로 보인다. 대부분의 도시와 같이 수원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의 변모가 초래되었고,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화성 내부 전래 중심시가지의 침체를 가져온 반면(윤효진과 이종호, 2007) 외곽 수원팔경의 주대상인 서호와 남계 그리고 북지(만석거) 등의 경관시설이자 치수시설은 조선후기 수리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농업기술의 발달 성과에 부응한 측면이 크며, 근대화 과정을 지나면서 농업 중심도시 수원의 실용적 경관으로 계속 진화하였다.

따라서 초기 「의장화된 경관」으로서의 화성춘·추팔경은 수원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으로 주민의 산업 행위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evolved landscape)」, 「수원팔경」으로 서서히 변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화산두견'의 주 대상인 화산 용릉은 시거리상 팔달산의 서장대 근방에서만 조망 체험이 가능한 상징적 경관이라 판단되고, 방화수류정은 화성춘·추팔경의 '홍저소련'과 '용연제월'의 시점이며, 이후 수원팔경의 '남계장류', '화홍관창', '용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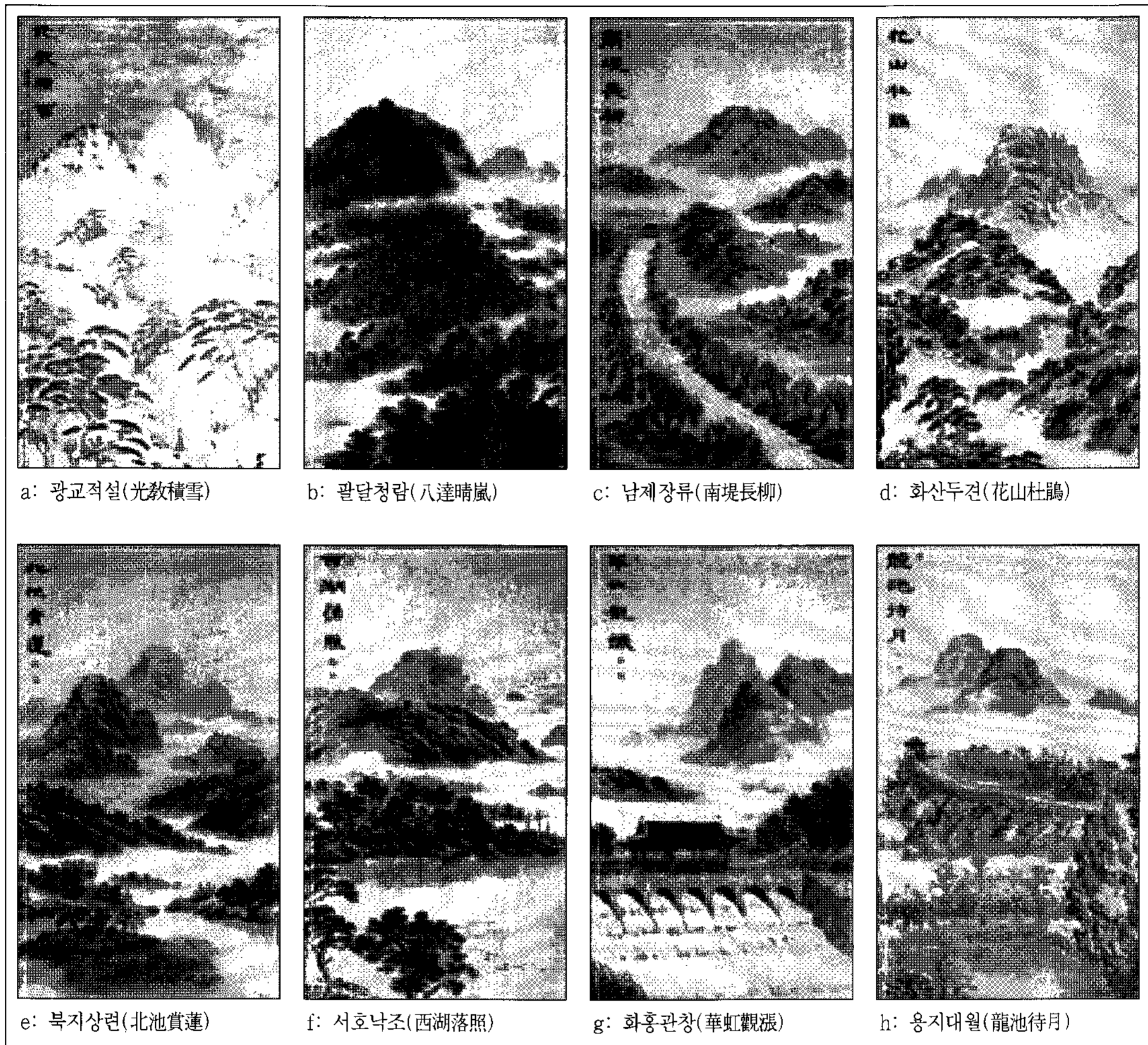


그림 5. 수원팔경도

자료: <http://www.suwoncity.net/www2/bbs/board>

월'을 근경 또는 중경에서 적나라하게 조망할 수 있는 탁월한 승경의 요처로 각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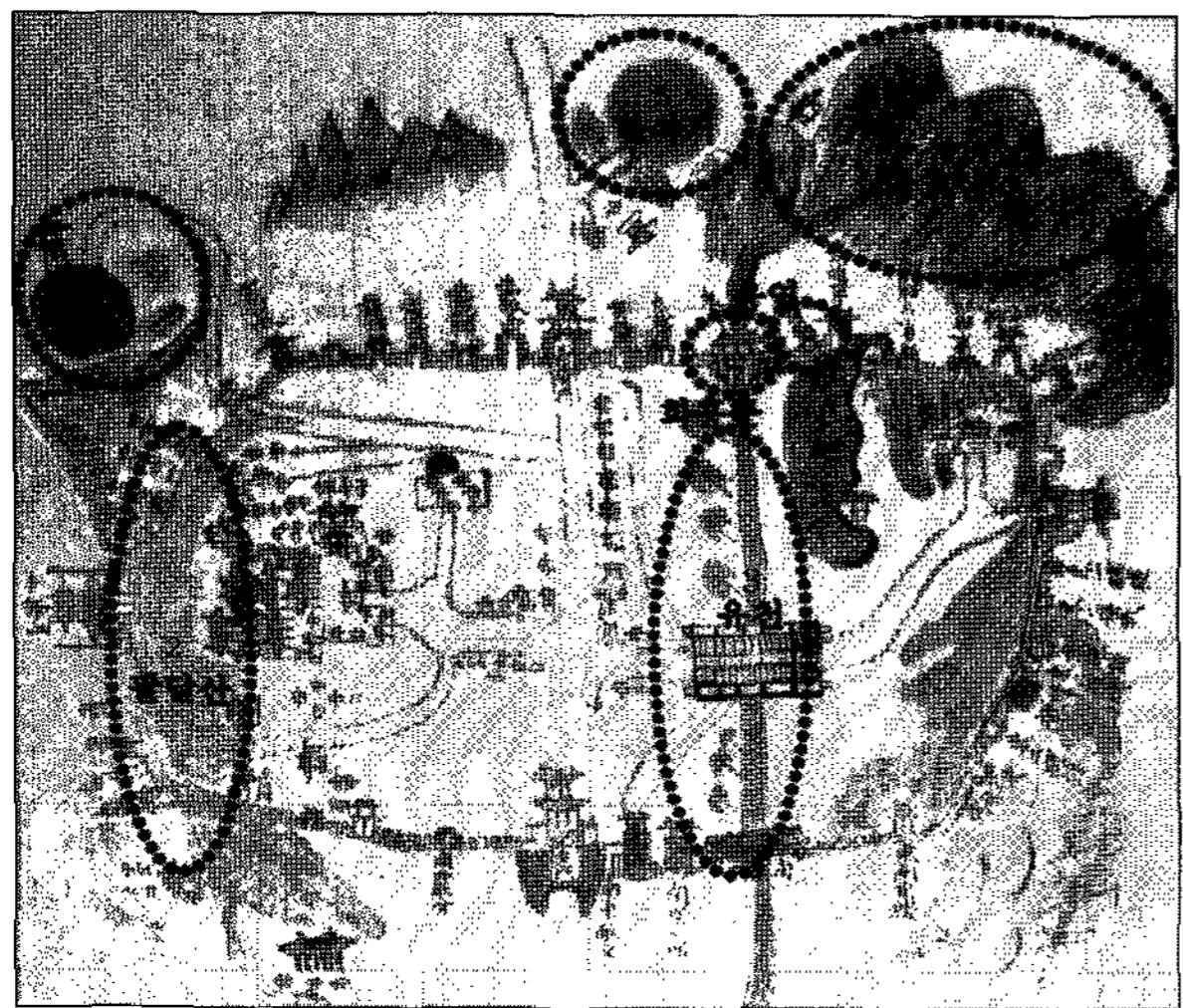
2) 수원팔경의 상징성

수원 화산은 이미 백여 년 전 윤선도가 효종(1649~1658)의 능지로 강력하게 추천한 곳이며, 읍치의 이전과 화성 건설에는 반계 유형원의 주장을 수용하고⁹⁾ 그것을 실천하였다(성동성, 2001). 1872년 제작된 수원부지도(그림 7b 참조)는 화산을 중심으로 맞은편에 남산이 자리 잡고 남산과 독산성 사이로 물길이 지나고 있다. 지도에서는 화산의 풍수적 입지조건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현릉원과 건릉을 에워싸고 감아 도는 화산의 풍수적 장풍국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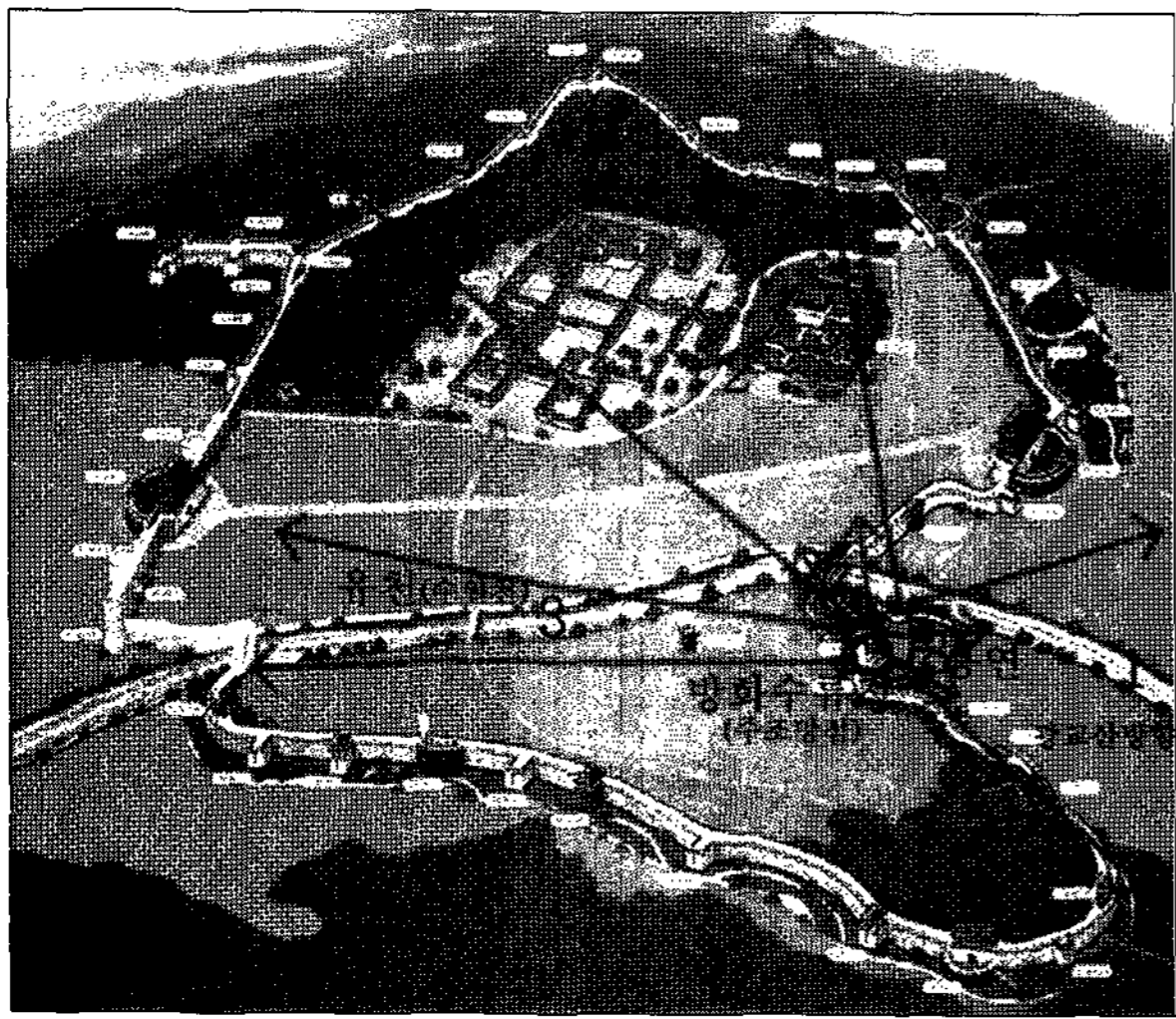
이에 반해 화성은 교통의 요충지로 개방적 지형조건을 보이고 있다. 해동지도 중 수원부지도에는 읍치가 성황산, 도고산, 남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읍치를 둘러싼 이들 산 바깥으로 물길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다

읍치의 수구방향에서 다시 남으로 흘러간다. 또, 대동여지도의 수원 부근을 보면 역시 과장되어 표현되고 있지만 상당히 개방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그림 7a 참조). 거시적 풍수 국면은 광교산에서 뺀어온 팔달산을 주산으로 삼아 기대고[背山], 앞으로는 유천을 끼고[臨水], 동으로는 광고산으로부터 뺀 지맥들을 안산으로 하고 있다.

화성준팔경의 제1경이었던 '화산서애(花山瑞靄)'는 수원팔경의 제4경인 '화산두견(花山杜鵑)'으로 바뀌었지만 결국 사도세자-용릉-비운에 가신 아버지-슬픔(서글픔)이라는 공통적 모티브를 통해 재현되었으며, 이는 결국 수원 제 팔경이 화성의 건설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지 정조시대 '화산을 뒤엎은 상서로운 아지랑이'는 점차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 또는 '화산 두견새의 울음'으로 감정이입되며 사도세자와 정조의 효심과 이루지 못한 열망의 메타포(metaphor)로 전환된 듯하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성준·추팔경(화성16경)이 화성 축성 시기의 바람을 담은 소망경관(desired



a: 수원팔경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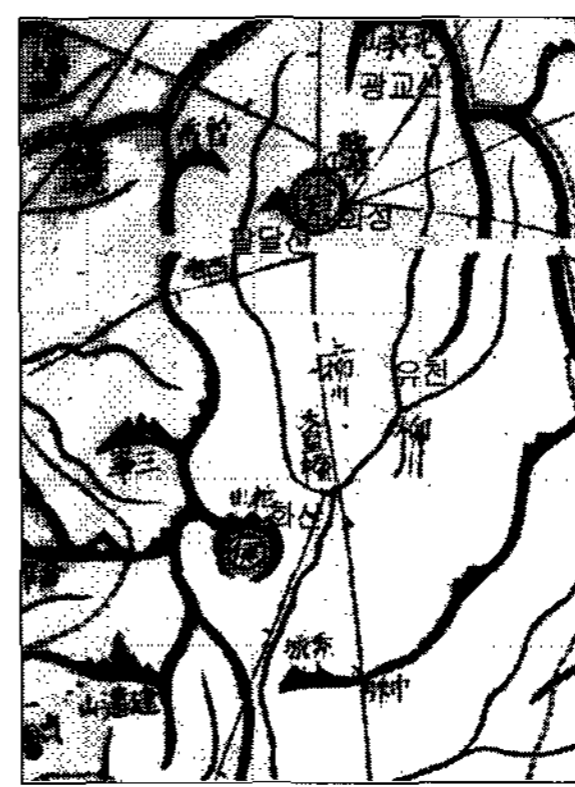
b: 방화수류정에서의 조망 특성

그림 6. 수원팔경의 분포와 방화수류정의 조망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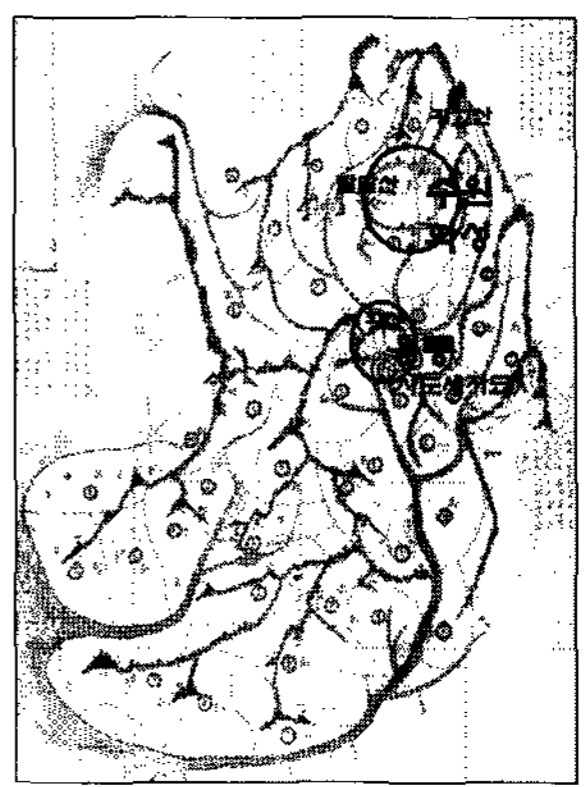
자료a: 수원시, 2000a: 36(바탕지도: 화성도, 19C 초반)

landscape)이라면 이후의 침식되어진 경관은 수원의 농업 진흥과 수리 그리고 지형 및 풍수경관적 대표성을 부가하며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evolved landscape)'으로 그리고 현재의 수원팔경은 사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규정되는 화성과 깊이 관련된 유산경관(heritage landscape)으로 그 가치를 논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수원은 우선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과 관련이 깊은 도시로서 모수, 매홀, 수성, 수주 등 고대 지명도 물과 관련되어 있다. 삼한시대의 모수국(牟水國)이라는 부족국가에서 삼국시대 고구려 점령 시기(5세기 말엽에서 신라 통일까지)에는 매홀(買忽)이라 불렀고, 통일신라시대 경덕왕대(757년) 이르러 수성군(水城郡)으로 개칭되며, 다시 고려시대 수주(水州)가 되



a: 대동여지도상의 화성과 화산



b: 1872년 수원부지도상의 화성과 화산

그림 7. 고지도로 본 화산과 화성의 관계성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었다. 수원이라 불리던 원래 지명은 현재 화성시 남양동지역으로 현재 화성시청이 있는 곳이며, 현 수원시가지보다 훨씬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수원이란 이름의 유래는 바로 이 서쪽 지방. 그러니까 갯벌 마을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낮은 야산으로 이루어져 물이 출렁거리던 곳에서 바닷물이 차츰 빠지면서 생긴 포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물나라, 즉 모수국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라 생각된다(그림 7b 참조). 따라서 정조로서는 구읍치에 편안히 잘 살고 있던 백성들을 강제 이주케 한 측은함과 한해에 두 번 이상 행차하면서 생긴 친근감이 공존(손정목, 1976)했을 것이다. 이런 심정을 기저로 민심의 동요를 잠재우고 본래 주거지의 고을 명을 새 도시에서 재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물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극대화함으로써 화산과 화성의 장소 동질성 더 나아가서 장소 일체감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원팔경은 수원천(유천)의 발원처, 치수공간, 관계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와 치수 및 감상을 목적으로 한 흥예문과 연못 그리고 정조 사후의 제례용 수원 등 직간접적으로 물과의 관련성을 보인다. 이는 수원을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것에 걸맞을 만큼 도시의 풍광을 아름답게 조성했다는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이다(윤종태, 2002: 17). 또한, 화산두건의 대상장인 용릉 주변에 조성된 원형 연못 곤신지(그림 9 참조)는 1789년 용릉으로 천장하면서 정조가 아버지 사도장현세자(추존장조)의 왕이 되지 못한 한을 풀어드리고자 용릉의 반룡농주(盤龍弄珠) 풍수 형국을 보완(성동환, 2001: 136)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연못임을 볼 때, 물(水)은 구 수원부의 공간적 이동에도 불구하고 화성 신도시를 동일한 장소적 영역과 소속감으로 연결하고 유대감을 증폭시킨 결정적 경관미의 본질이자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원팔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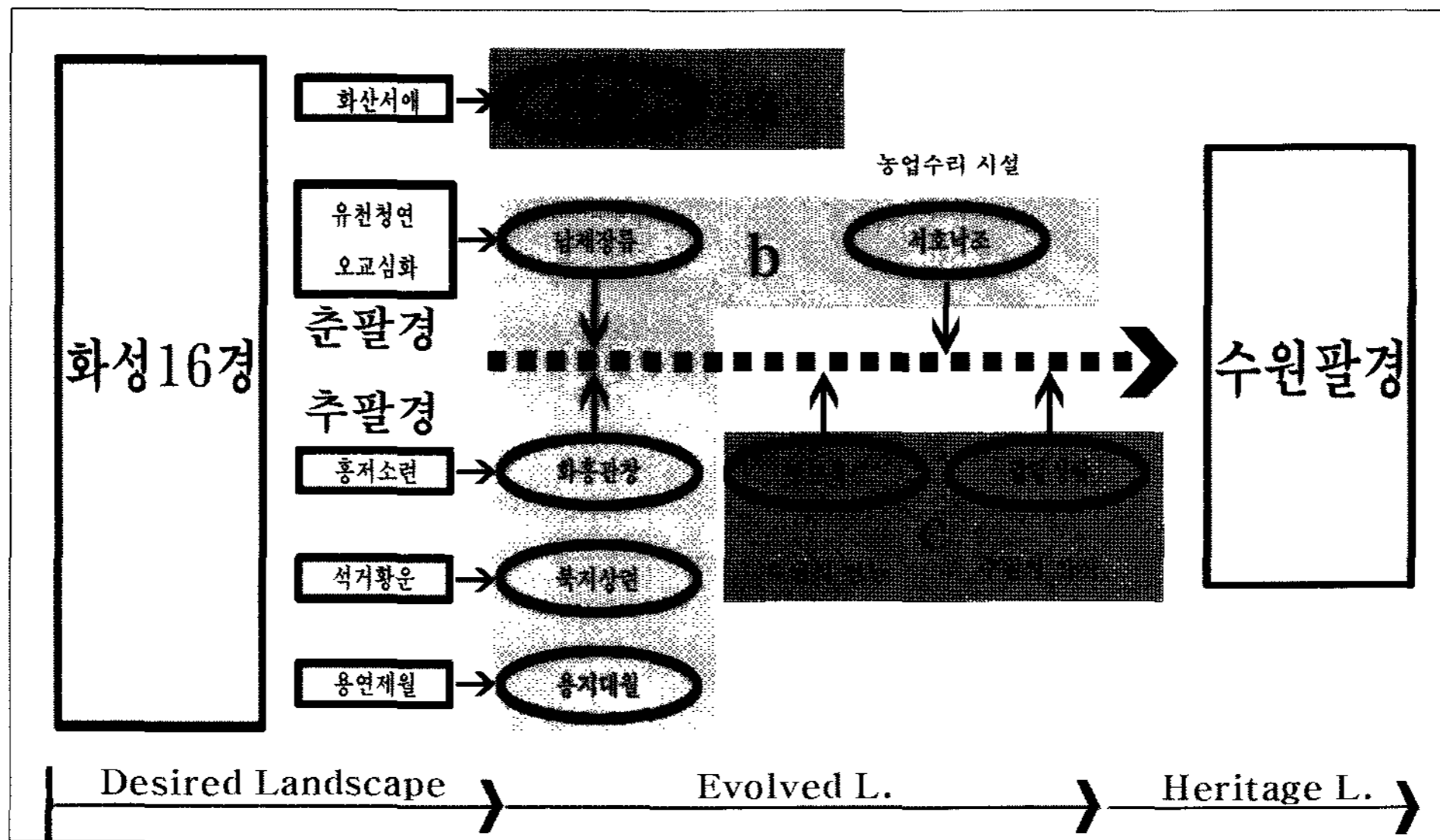


그림 8. 수원팔경의 형성과 변모과정 모식도

범례: a: 사도세자 천장지(遷葬地)의 주산, b: 치수 및 수리·관상시설, c: 수원의 지형경관 랜드마크



그림 9. 화산 용릉의 곤신지

표 6. 수원팔경과 물(水)과의 관련성

수원팔경	물과의 관련성			건설시기	비고
	대상요소	구현 형태	기능과 의미		
1. 광고적설	광고산	유천의 발원지	수원의 진산	-	△ 582m
2. 팔달청람	팔달산	어정(御井)의 발원지	제례용 수원	1801년	화령전내
3. 남제장류	남제	유천의 뚝방	치수	1796년	버드나무경관
4. 화산두건	용릉과 곤신지	원형연못	형국 보완	1789년	정조 13년
5. 복지상련	만석거	인공저수지	관계용수 공급	1795년	0.36km ² 규모
6. 서호낙조	축만제	인공저수지	관계용수 공급	1799년	0.19km ² 규모
7. 화홍관창	화홍문	홍예(수)문	수로 유도, 관상	1795년	수원천의 복수문
8. 용지대월	용지	반자연형 연못	유홍상경	1796년	방화수류정 부속 연못

이와 같은 특성으로 볼 때 수원팔경 원형경관의 보전 및 복구는 화성이라는 사적(史蹟)으로, 국제적으로는 세계문화유산과 긴밀하게 연계된 유산경관(heritage landscape)으로서의 가치 부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원팔경의 내적 의미를 물과 관련한 상징성을 고찰하였지만 도출된 추론을 보다 강화하고 의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 관점에서 자료 발굴과 논리적 고증 과정이 요구되며, 이는 후속연구로 돌리고자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수원팔경의 형성과정과 그 이면에 내재된 의도와 상징성 등 경관 함의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화성춘·추팔경과 이후 수원팔경의 의미가 주는 형식성과 상징성 등의 문화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수원팔경의 형성과정과 의미 등 수원팔경 속에 담긴 정치·사회적 담론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정조시대 화성의 경관계획적 성과를 들라면 방어와 조경을 위한 축성기술이 결합한 「경관 창조의 지혜」와 「치수 및 농업 진흥을 위한 수리기술의 적용」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성곽 접점부에 창의적 시설을 구축하여 물, 수목, 성곽 등 건축물이 만나 이루어내는 실용적 사고와 미학적 사고가 조화를 이룬 공간 창출로 나타났으며, 후자는 수원천 준설 및 정비 그리고 경관생태적 식재기법의 도입과 조림, 저수지의 휴양위락공간 활용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도시경관의 미래상 화성춘·추팔경의 경관내용으로 볼 때, 새로운 도시건설을 위한 성곽 등의 형체요소는 물론 풍물, 행사 등 다양한 의미요소와 풍물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경승의 조성 및 치수를 목적으로 한 식재, 물의 도입과 활용은 수원 화성의 중요한 계획요소이자 경관계획의 최대 동력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화성춘·추팔경은 왕권 차원에서 앞으로의 도시경관 미래상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팔경의 구성요소를 보면 화성의 지형요소 및 시설인 팔달산, 남제, 용릉, 만석거, 축만제, 화홍문 그리고 방화수류정의 부속연못인 용지 등 대부분의 모티브는 화성춘·추팔경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수원의 대표적 산악이자 랜드마크인 광교산과 팔달산을 주 대상으로 한 '광교적설'과 '팔달청람'이 추가되었다. 한편, 수원팔경의 각 경은 수원천(유천)의 발원처, 치수 및 관계용수 공급을 위한 인공저수지, 용릉의 비보풍수 그리고 정조 사후의 제례용 수원(水源) 등과 같이 직간접적으로 물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등장함을 볼 때, 정조 사후에도 물(水)은 용릉의 화산 그리고 구 수원부와 화성 신도시를 동일한 장소적 영역과 소속감으로 연결시키는 결정적 매개체이자 경관의미의 본질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화성이 정조시대 특정 설계 의도 하에 창조된 「의장된 경관(designed landscape)」이라면 화성 축성 직후의 모습을 담은 화성춘·추팔경은 미래의 경관상을 그린 「소망경관(desired landscape)」이며, 지금의 수원팔경은 수경관(water landscape)이 지극히 강조된 경관으로 주민의 영농과 치수 행위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evolved landscape)」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함의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화성의 완전한 복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원팔경 등 화성 원형경관의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복원을 통한 문화경관의 본질 회복이 요망된다.

- 주 1. 수원시 화성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 관련 7대 핵심 사업은 1)팔달산 회주도로 정비, 2)화성행궁앞 마당 조성, 3)수원천 정비, 4)역사유적 복원, 5)옛길 역사문화거리 조성, 6)수원 화성 문화콤플렉스 조성, 7) 팔달로 보행광장 조성 등이다.
- 주 2. 横谷賢一郎은 「近江八景之内」, 唐崎夜雨의 배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石田尾博夫와 包清博之는 坊津八景의 경관적 의의(Requirements for their Revitalizatio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주 3. 서호 향미정(杭眉亭)의 유래는 송대 문장가 소식(蘇軾)이 항주의 태수를 지내며 서호가 항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미목이라 했던 데서 유래하며(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234쪽), 서호를 월나라의 미인 서시(西施)에 비유해서 서자호(西子湖)라고 불렀다. 양귀비와 함께 중국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서시가 항주의 미인이라는 데서 서호를 서시에 비견 것이다(<http://jbs.pe.kr>).
- 주 4. 필사본의 16권 7책으로 구성된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으로 간행 연대와 간행 경위는 알 수 없다. 홍길주의 《현수갑고(峴首甲藁)》, 《표릉을참》, 《항해병함(沆漉丙函)》 등의 문집은 30세 이전, 30~50세까지, 50세 이후의 저작들을 모은 일련의 문집으로 내용은 잡저·기·전·행장·술·묘지명·묘갈·서(序)·제발·서(書)·진향문·제문·찬·명·송·변려·시·총비기·잡문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 5. 장안문 못 미쳐 영화동 동북쪽 넓은 들을 지칭하는데, 예전엔 흔히 '광교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1796년(정조 20)에 "정자(亭子)를 영화(迎華)라 하고 들[野]를 관길(觀吉), 별판[坪]을 대유(大有), 도랑[渠]를 만석(萬石)이라 이름 짓고 비석을 세우도록"한 것에서 유래한다. 예전엔 영화역으로부터 100여보, 장안문으로 부터 30보 남짓 떨어진 도로 동편에 '觀吉野(관길야)'라고 새겨진 표석이 있었다고 한다.
- 주 6. 1998년에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넓이는 355,800m²이다. 만석거(萬石渠)는 1795년 수원 화성을 쌓으면서 인근에 입주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든 저수지로 축조 후 쌀을 1만 석이나 더 생산하였다고 해서 만석거라고 불렀다. 하지만 현재는 일왕저수지 또는 교귀정방죽이라고 부른다. 교귀정이라는 이름은 저수지 남쪽에 교귀정(交龜亭)이라는 정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1996년 10월에 건립한 영화정(迎華亭)이 들어서 있다. 경북 상주의 공갈못, 전주 덕진지, 해주의 부용지와 함께 전국 연꽃 4대 서식지이기도 하였다(<http://www.joongboo.com>).
- 주 7. 구암(龜巖)은 팔달문 밖 영동시장 근처에 있었던 산으로 구천동 10-44번지 일대를 지칭한다. 현재는 중동 사거리에서 신갈 방향으로 난 원천로와 녹산빌딩 등이 들어서 있어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 거북산당이라는 당이름을 통해 그 자취를 살필 수 있을 뿐이다. 문헌 기록이나 옛 지도를 보면 거북산은 구산(龜山), 구봉(龜峰) 등으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http://www.suwoncity.net>).

인용문헌

1. 김동욱(2002a)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 김동욱(2002b) 『화성성역의궤』의 건축사적 의미. 진단학보 93: 473-495.
3. 김동훈, 강건희(2002) 역사적 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보전과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10): 35-42.
4. 김영모, 이선, 진상철, 장종수(2004) 화성 행궁의 식생경관 복원을 위한 고증과 복원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4): 39-53.
5. 김현정, 김정태(2004) 성곽의 야간경관조명 실태조사: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9-56.
6. 박동석, 정종수, 이재근, 최종희(2007) 수원 화성의 조망 및 조망 경로를 고려한 경관보존·관리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3): 1-25.
7. 박정혜(2002) 『화성성역의궤』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93: 413-471.
8. 박천우, 김은진(2003) 화성 축성에 관한 연구: 정다산의 성설을 중심으로. 장안대학 장안논총 23: 524.
9. 박춘균, 이재근(2000) 지형, 지세가 성곽축성 높이에 미치는 영향: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8(1): 1-10.
10. 박현모(2001) 정조의 정치와 수원성: 화성건설의 정치적 의미. 한국과 국제정치 17(1): 65-100.
11. 백종철(2007) 정조시대 화성의 가로, 녹지, 수리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 사예연구소(2000) 정조대왕·화성관련자료 전시도록. 58-60.
13. 성동환(2001) 현릉원 천원과 화성건설을 통해 본 정조의 풍수지리관. 한국사상사학 17: 121-167.
14. 손민호, 최종희, 이우균(2004) 수원성 방화수류정 권역의 입지와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4): 103-111.
15. 손정목(1976) 세계최고의 계획된 신도시-화성: 신도시 화성건설의 이념과 수법. 도시문제 11(9): 51-86.
16. 수원시, 수원시문화원(1994) 국역화성성역의궤.
17. 수원시(1991)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 pp. 130-148.
18. 수원시(2000a) 수원의 옛지도. 현대자문화사. p. 36.
19. 수원시(2000b) 화성기본계획.
20. 수원향교(2002) 수원향교지. pp. 844-850.
21. 심승구(2006) 수원 화성행궁 앞 공간의 문화 복원과 전망: 21세기 한국문화의 위상과 성찰. 인문콘텐츠 8: 197-213.
22. 안경환(2001) 수원 화성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수원대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16: 87-94.
23. 안장리(2007) 조선시대 왕의 팔경 향유 양상. 동양학.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42: 43-65.
24. 양성욱(2007) 아름다운 근대역사문화도시의 풍경 보전. 건축. 2007년 5월호. pp. 46-50.
25. 오민근(2007) 역사·문화의 경관관리에 의한 공간문화와 지역문화의 창조적 형성. 문화경관 보존과 형성/전주시 Artpolis 실현을 위한 심포지움자료. 전주시/전북대학교. pp. 69-82.
26. 오정학, 허상현(2006) 외국인 관광객의 문화관광 형태에 관한 비교 연구: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1(2): 141-154.
27. 유봉학, 정해득(1999) 수원지명총람 수원시. 수원문화원. pp. 61-75, 249-257.
28. 윤종태(2002) 수원화성(유천성) 원형경관에 나타난 버드나무에 관한 연구. 환경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윤희진, 이종호(2007) 한일 양국에 있어 역사적 계획도시의 도시공간구조 형태특성 및 변화과정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 화성과 일본 히코네성의 사례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7(4D): 525-533.
30. 이태식, 김정현, 이동욱(2004) 역사적 토목 구조물 수원 화성. 자연과 문명의 조화 52(9): 97-101.
31. 장미아, 김남기, 배재수, 김진성(2007) 역주 조선의 임수. 지오북.
32. 전중환(2006) 지역 문화의 해석에 있어서 경관 연구의 함의. 중원문화논총 10: 65-87.
33. 정기호(1994) 수원 화성축조계획의 분석 개략. 생명자원과학연구 1(1): 33-37.
34. 정민채(2001) 화성에 대한 수원시민의 관광이미지 분석. 관광지리학 15: 221-237.
35. 최영진(1973) 화성성역 당시의 식수조경에 관하여. 기전문화연구 3: 163-17.
36. 최은주(2001) 조선전기 팔경시 창작 경향. 대동한문학 15: 299-331.
37. 허소영(2000) 도시문화유산 보존방법에 관한 연구: 수원시 화성의 문화유산 보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 青木陽二, 榑原映子(2007) 八景の分布と最近の研究動向. 日本國立環境研究所研究報告. 第197號: pp 93-105
39.
40.
41.
42.
43.

원 고 접 수: 2008년 1월 14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8년 4월 8일
 4 인 의 명 심 사 필